

시민 안전 위한 지자체 시책, 사업 다양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2021. 1. 11.

경상남도 예방안전과
2021. 1. 21.

강원도 건축과
2021. 1. 21.

부산시,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사전 예비조사 실시

부산시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키즈카페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 예방과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2020년 키즈카페 환경안전성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키즈카페에 사용된 벽지와 도로 등 마감재와 실내 공기질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을 위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예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 발표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 부산의 150개 키즈카페 중 45곳을 대상으로 268건을 예비 조사한 결과 21개 키즈카페에서 28건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벽지와 시트지 등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10건, 실내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가 18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시내 키즈카페 150여 곳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까지 전체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경상남도, 지역 숙박시설 안전 위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시행

경상남도가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농어촌 민박·펜션에 대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시행한다. 경남소방본부·관광진흥과·농업정책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 제도는 도내 민박·펜션 신규 영업신고(신청)시 소방시설 등을 소방관서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도는 ▲민박이「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완공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점 ▲펜션의 경우「소방시설법」에 따라 400m² 미만의 건축물은 완공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민박·펜션이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신규 영업주가 교육 없이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점 등 화재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에 따라 앞으로 펜션·민박 신규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관할 소방서로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현장확인 결과를 시·군에 다시 통보하게 된다. 현장확인 시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 본격 운영

강원도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 점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출범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원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국 광역도 중 최초로 설치되어 도내 중소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계도 활동 및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주안점을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전기·소방 등 건축안전전문단을 구성하고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안전에 위협이 있는 건축물과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 2023년 시행 예정